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CNBC: 뉴욕 연준 설문 결과: 고용 축소, 일자리 찾기 걱정, 임금에 불만족
- Bloomberg: 미 일자리 수치 조정으로 최소 1백만개 사라져

[미국 금융]

- Bloomberg: 씨티 그룹, “헤지펀드 이제는 달러로 캐리 트레이드 이용”
- Bloomberg: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발표 주목하면서 금값 사상 최고치

[미국 대선]

- CNBC: 해리스, 법인세 28%까지 인상 제안

[미국 생활]

- Bloomberg: 노동절 여행 9% 증가 예상

[글로벌 경제]

- CNBC: 중국 청년 실업률, 7월에 17%로 상승하며 최고치 기록
- Bloomberg: EU,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9% 추가 관세 도입

[에너지]

- CNBC: 미국 유가 \$74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 CNBC: IRA, 미국 제조업과 청정 에너지 붐에 기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바코드에서 QR 코드로의 전환, 소매업계 미래 바꾼다
- Bloomberg: 아마존, AI 투자 증가로 주가 하락
- WSJ: 스타벅스, 새 CEO에 파격적인 대우 제공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CNBC: Fed survey shows lows in employment, worries about finding work and dissatisfaction with pay

뉴욕 연준 설문 결과: 고용 축소, 일자리 찾기 걱정, 임금에 불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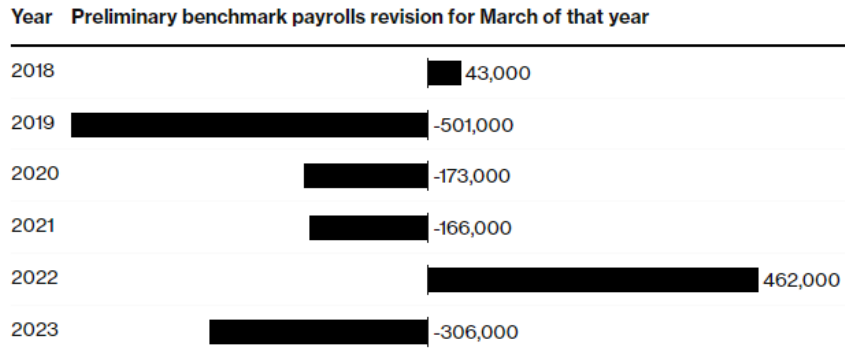
- 어제 월요일 뉴욕 연준이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똑같은 설문조사 당시 일자리를 갖고 있는 미국인들 중 88%가 여전히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 실업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은 4.4%로 작년보다 0.5%p 늘어났으며 설문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다.

- 더욱이 최근 4주 동안에 새 일자리를 찾고 있는 비율은 28.4%로 작년도 보다 9%p 증가했으며 지난 2014년 3월 이래 가장 높았다.
- 현재의 임금 만족도도 56.7%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 포인트 떨어졌다.
- 62세 넘어도 일을 기대하는 비율은 48.3%로, 67세 넘어도 일을 기대하는 비율은 34.2%로 2%p 이상 올랐다.

CNBC 기사

Bloomberg: Fed Confronts Up to a Million US Jobs Vanishing in Revision
미 일자리 수치 조정으로 최소 1백만개 사라져

-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미국의 일자리 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나 연준이 금리 인하에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 골드만삭스와 웰스 파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 수요일 발표한 연방정부의 예비치 수정 수치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1년간 현재 평가보다 60만개의 일자리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한 달에 5만개의 꼴로 실제보다 적다는 것이다.
- JP모건은 약 36만개의 일자리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많으면 1백만개 가량 적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 고용 수치를 50만1천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지난 15년간에 가장 큰 규모로 실제보다 더 오래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최종 수치는 내년 초에 발표된다.
- 이처럼 실제 고용 숫자의 축소는 연준의 두 가지 목표 중 하나인 완전 고용에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다.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data compiled by Bloomberg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Citi Says Hedge Funds Are Using Dollars for New Carry Trades**씨티 그룹, “헤지펀드 이제는 달러로 캐리 트레이드 이용”**

- 씨티 그룹은 캐리 트레이드 추세가 다시 돌아왔다고 언급했는데 이번에 차이점은 헤지 펀드들이 이머징 시장에서 베팅하기 위해 예전의 엔화 사용보다는 달러를 빌리는 행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 투자자들은 올해 연준이 금리를 0.75% 이상 인하하는데 베팅을 늘리고 있다. 지난 7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기존에 미국의 강한 성장과 일본의 최저 금리에 베팅하던 기존 모델에서 탈바꿈하고 있다.
- 일부 전문가들은 달러에 대한 포지셔닝 심리가 훨씬 약세로 돌아서서 사람들이 금리 인하로 추측하는 환경이 리스크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 캐리 트레이드가 크게 추락했던 글로벌 슬럼프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캐리 트레이드는 투자자들이 금리가 낮은 통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위험 자산에 수익을 두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Gold Hits Fresh Record as Focus Turns to Powell in Jackson Hole**파월 의장의 잭슨 홀 발표 주목하면서 금값 사상 최고치**

- 트레이더들이 이번 주 연준의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기다리면서 금값이 다시 기록적인 가격을 보였다.
- 금값은 온스당 \$2,528.72달러로 올해 들어 22% 이상 상승했다. 최근 트레이더들은 이번 주 금요일 파월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언급을 할지 실마리를 찾으려고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른바 이자율과 무관한 금값 상황에서는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긍정적인 상황이 된다.
- 트레이더들은 또한 연준의 금리 관련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주 목요일의 실업청구 건수 발표도 기다리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대선]

CNBC: Harris proposes raising the corporate tax rate to 28%, rolling back a Trump law

해리스, 법인세 28%까지 인상 제안

-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는 집권 시 자신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28%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해리스 캠페인 대변인은 “해리스 후보가 근로자의 주머니에 돈을 돌려주고 동사에 억만장자들과 큰 기업들의 자신의 몫에 대해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는 이른바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의 기본적인 기조는 중산층의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반면에 공화당의 트럼프는 재선 될 경우 기존의 법인세를 더 낮추겠다고 최근에 말했다.

CNBC 기사

[미국 생활]

Bloomberg: Labor Day Travel Seen Climbing 9% After Record US Summer

노동절 여행 9% 증가 예상

- 작년에 비해 노동절 국내 여행 예약이 9% 증가했다고 전미자동차협회(AAA)는 밝혔다.
- 이 같은 예상은 이번 여름 미국 국내 연료 수요에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준다. 미 국내 여행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주간에 사상 최고치로 예상되었었고 그 전 메모리얼 데이 경우에도 20년래 가장 높은 여행으로 예상됐었다.
- 올해 미국내 여행 건수가 호조를 보인 것은 휘발유 가격 인하 덕분이다.
- 노동절 주말 소매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작년 \$3.81보다 낮은 \$3.50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CNBC: China's youth unemployment soars above 17% in July, highest since new system began in Dec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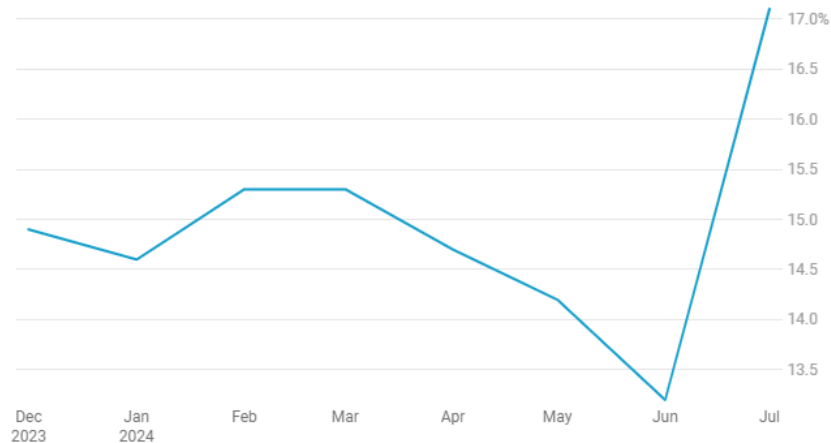
중국 청년 실업률, 7월에 17%로 상승하며 최고치 기록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7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17%를 넘어 지난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6월의 13.2%에서 상승한 수치이다.

- 월요일에 발표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16~24세 사이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의 실업률이 6월의 13.2%에서 7월에는 17.1%로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청년 실업률에 대한 보고를 중단한 바 있으며, 이는 계산 방법을 재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제외한 수치이다.
- 한편, 이전 계산 방식에 따라 2023년 6월에 보고된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China youth unemployment rate

For people ages 16 to 24, and not in school



Sourc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Wind • Created with Datawrapper

CNBC 기사

Bloomberg: EU Plans 9% Tariff on Tesla Cars as China EV Probe Advances

EU,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9% 추가 관세 도입

- 유럽연합(EU)은 화요일, 중국에서 수입되는 테슬라 전기차에 9%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에서 수입된 전기차에 대해 최종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방안 결정에 따른 것이다.
- EU는 중국이 전기차 업계에 제공한 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11월 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관세에 대해 회원국들과 추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상하이 자동차, 볼보 자동차의 모기업인 지리, BYD는 각각 36.3%, 19.3%, 17%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이는 이전에 발표된 수치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테슬라는 다른 제조업체들보다 낮은 9%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중국이 외국인 소유 기업에 제공한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EU 관계자는 설명했다.

The EU's Latest Duty Rates for Chinese EVs

European Commission makes slight adjustments

Manufacturers	Proposed duty rates
SAIC	36.3%
Geely	19.3%
BYD	17%
Tesla	9%
Other non-cooperating companies	36.3%
Other cooperating companies	21.3%

Source: European Commission

Bloomberg 기사

[에너지]

CNBC: U.S. crude oil holds steady above \$74 per barrel after selling off 미국 유가 \$74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 미국 원유 가격이 \$74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 아시아의 수요 우려와 중동의 긴장 완화로 인한 공급량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 이번 분기 원유 가격은 8.7% 하락했고, 브렌트유는 9.8% 하락했다.
- 앤서니 미국 국무부 장관은 중동에 방문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재개했다.
- 그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협상 제안을 수락했고, 하마스도 그렇길 바란다고 말했다.
- 그러나 야후야 하마스 지도자는 최근의 협상 회담을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웨스트 뱅크의 공격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박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편 지난 7월 하마스 지도자 암살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을 자제하면서 유가가 하락했다.
- 미국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으로 더 큰 전쟁을 막길 희망하고 있다.

CNBC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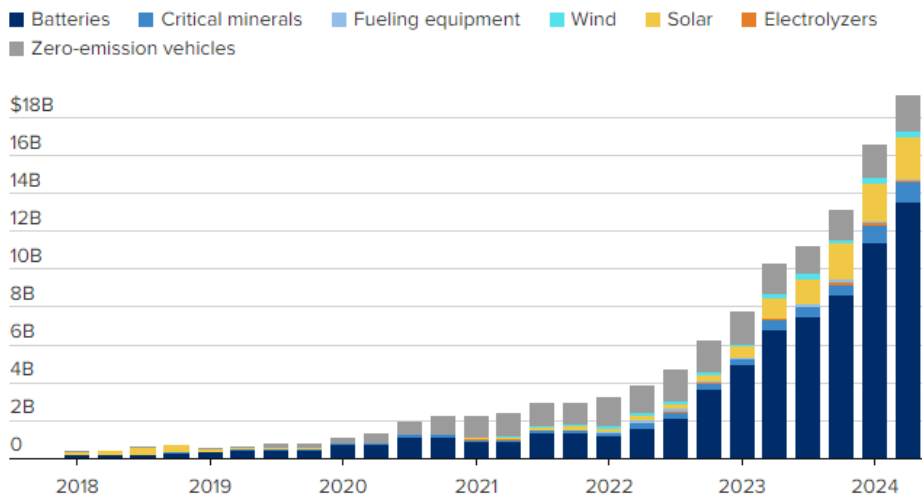
CNBC: How the Inflation Reduction Act sparked a manufacturing and clean energy boom in the U.S.

IRA, 미국 제조업과 청정 에너지 붐에 기여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전역에 제조업 붐을 일으키며, 특히 경제 발전이 필요한 농촌 지역에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IRA의 미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IRA가 약화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일부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과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의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8월 IRA에 서명한 이후, 기업들은 청정 에너지 기술과 전기차 제조에 1,33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했다. 실제 제조업 투자액은 총 890억 달러로, IRA 이전 2년에 비해 305%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IRA는 제조업, 에너지, 소매 부문에서 5조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의 파트너인 환경단체 E2에 따르면, IRA 통과 이후 271개의 청정 에너지 기술 및 전기차 제조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으며, 이 프로젝트가 모두 완료되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IRA로 촉발된 투자는 특히 농촌 지역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로디움 그룹의 파트너 하우저는 “대도시에 집중되는 AI, 기술, 금융에 대한 투자와는 달리 청정 에너지 투자는 실제로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밝은 신규 투자처 중 하나”라고 말했다.

Actual investment in manufacturing for clean energy technology in the U.S.

By technology type Q1 2018–Q2 2024



Source: MIT Center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and the Rhodium Group's Clean Investment Monitor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The 50-Year-Old Technology That Brands and Retailers Are Trying to Quit

바코드에서 QR 코드로의 전환, 소매업계 미래 바꾼다

- 많은 소매업체들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스캔하는 대신, QR 코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QR 코드는 바코드보다 더 많은 기능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매출과 고객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코카콜라, 로레알, 프록터 앤 갬블과 같은 기업들과 이들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체들이 이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QR 코드로의 전환은 쉽지 않다. 글로벌 협업, 소매업체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데이트, 셀프 체크아웃 사용을 위한 쇼핑객 교육 등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 P&G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전환을 시도하여 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QR 코드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로레알의 스테판 라누엘 디렉터는 QR 코드가 디지털 경험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0년 된 바코드를 대신하여, 모두가 QR 코드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QR 코드는 1994년에 발명되었지만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더욱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QR 코드는 가격뿐만 아니라 쿠폰, 리콜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쇼핑객들은 QR 코드를 스캔하여 제품의 영양 정보, 사용법, ESG 정보 등을 확인하고, 제공되는 쿠폰에 액세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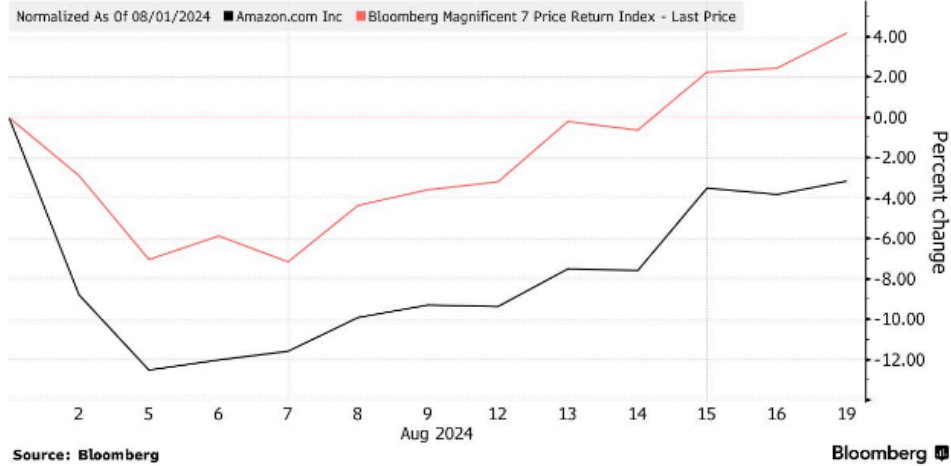
WSJ 기사

Bloomberg: Amazon's AI Spending Plans Keep Stock From Joining Tech Rebound

아마존, AI 투자 증가로 주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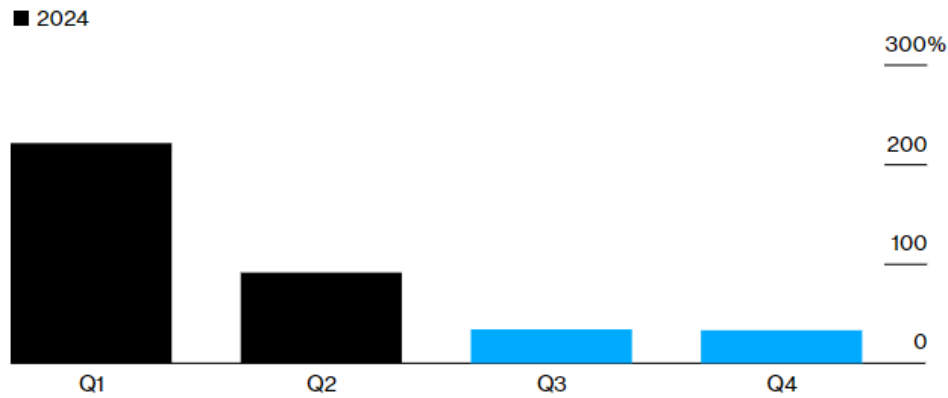
- 다른 초대형 기술주들과 달리, 아마존닷컴의 막대한 지출이 이익을 희생시키고 있어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아마존은 8월 초 실적 발표에서 인공지능 컴퓨팅에 대한 지출을 우선시하겠다고 투자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후 아마존의 주가는 매가캡 기술주들보다 뒤처지고 있다. 아마존의 이러한 움직임은 비용 절감으로 수익이 급증하여 2022년 말 저점에서 두 배 이상 주가가 상승한 이후, 다시 투자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 Centre Asset Management LLC의 제임스 아베이트 투자 책임자는 “투자자들은 자본 지출 증가가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마존의 주가는 투자를 늘릴 때보다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때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Amazon Trailing Most Megacap Peers Shares have slumped since reporting earnings



Amazon Earnings Growth Set To Decline

Percent growth in EBIT, year over year



Bloomberg 기사

WSJ: Starbucks's New Boss Gets an Unusual Perk: Remote Work 스타벅스, 새 CEO에 파격적인 대우 제공

- 스타벅스는 새로운 CEO를 영입하기 위해 1,000만 달러의 현금 보너스와 수백만 달러의 주식 기반 보상을 제공했다. 또한, 본사가 있는 시애틀로 이주하지 않고도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 현 치폴레 CEO인 브라이언 니콜은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회사 전용기로 스타벅스 본사와 출퇴근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았다. 이 계약으로 니콜은 미국에서 드물게 재택근무를 하는 CEO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는 스타벅스가 그를 영입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WSJ 기사

잭슨홀 앞두고 천장 뚫은 금값..."내년 중반 3천달러" 전망까지**올해 20% 넘게 올라 온스당 2천500달러대...은값도 비슷한 흐름
중국 금 수요 둔화는 가격상승 제한 요인**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지난 16일 처음으로 온스당 2천500달러를 넘어섰고, 전날 오전 한때 2천509.94달러로 고점을 또 한 번 경신했다.

한국시간 이날 오후 3시 59분 기준 금값은 전장 대비 0.07% 낮은 2천502.48달러로 숨고르기 중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